

광주서 '갯돈 사기' 제주는 자살 시도

"5600만원 못받았다" 고소 계모임 여러개 운영한 듯 피해규모 수억 달할 수도

40대 여성 계주가 상가 상인·동네 이웃에게 갯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갖지 못해 자살을 시도,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장기 불황, 저금리 현상 등을 고려해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계모임 등을 통해 목돈 마련에 나선 서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A(여·50)씨가 지난 20일 계주 김모(여·47)씨에게 갯돈 등 5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고 김씨가 매월 50

만 원씩 부으면 순번에 500만원 가량의 갯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에 가입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썼다. 경찰은 김씨가 매월 30만~300만원씩 부으면 원하는 순번에 300만~3000만원 정도의 갯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계 모임을 운영했다는 고소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특성상 관련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계모임 숫자나 갯돈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주변인들 사이에서는 김씨가 운영, 관리하는 계 모임이 적지 않고 참여한 주민들이 최소 40명에 달해 피해액도 수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도 퍼져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갯돈 사건 특성상 한 사람이 고소장을 낸 뒤에야 추가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된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피해 사실은 병원에 입원중인 김씨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종교활동 강요 남편, 부인에 위자료 줘라”

서울고법 이혼소송 판결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종교 활동을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부인이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4억1천만원과 일부 부동산 등 재산을 떼어주도록 했다.

큰아들의 사망을 계기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생활 태도를 따르라고 강요했다.

그는 아내에 걸린 부인을 위로하기


는 커녕 '사탄 마귀'라고 부르면서 폭언했다. 생활비와 자녀들 학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과 상의없이 많은 돈을 현금으로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의 현금 기부 등 과도하고 독단적인 행위, 암 투병 중인 배우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인을 막연히 비난하기 전에 왜 가족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됐는지, 혹시 그런 원인을 제공한 허물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남편을 꾸짖었다.

/연행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순천 체벌 고교생 뇌사, 학교측 은폐 의혹

교사가 지각 학생 체벌 머리 두차례 벽에 짚어 학교 후 태권도장 갔다 13시간만에 뇌사상태

잇갈린 주장
학교측 “전날 구토증상 보여 조퇴했다”
학생들 “정상적으로 일과 마치고 학교”
도교육청, 조퇴여부·출석부 조작 의혹 조사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고교생이 13시간 만에 뇌사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도 사고가 발생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순천경찰은 23일 학생의 머리를 밀어 벽에 짚게 한 혐의(폭행)로 순천 K고 교사 A(5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학교 교실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송모(18·2학년)군의 머리를 두 차례

벽에 짚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송군에게 스스로 머리를 짚도록 지시했지만 약하게 짚자 직접 송군의 머리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군을 밀어 두차례 벽에 머리를 짚게 했지만

뒷머리를 남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군은 이날 오후에도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걷는 벌을 받았으며 학교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평소로 밀어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송군은 당시 10여분간 몸풀기 운동을 마치고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오

후 9시35분께 쓰러졌다. 쓰러지기 전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고 도장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학생의 머리를 벽에 짚게 한 행위가 교육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송군이 체벌 후 이상증상을 보였는지와 송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파악해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송군이 사고 당일 조퇴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측은 송군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송군이 사고 하루 전날인 17일 구토 증상을 보여 조퇴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반 학생들은 "송군이 조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과를 마치고 학교했다"고 진술해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학교와 교사 A씨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교사들과 학생, 가족들을 상대로 체벌 당시의 상황과 체벌 전후 송군의 행적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송군의 뇌사와 체벌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송군의 조퇴 여부와 출석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사고 발생 이틀만에 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점 등 사건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젓터미 된 마을 창고

23일 신안 지도읍 봉동마을 한 창고에서 전기합선으로 보이는 불이나 창고가 전소 되고 경운기 2대, 오토바이 3대, 점미기 2대를 태운 후 한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흥 야산 불 660㎡ 태워

23일 오전 11시10분께 고흥군 과역면 야산에서 불이 나 660㎡를 태우고 소방서출산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다.

진화가 끝난 뒤 현장에서는 인근 마을 주민 전모(여·86·정각장에 4급)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쓰레기 소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전씨가 발뒤꿈치 태우다 불길에 갑자기 옮겨 붙자 이를 끄려다 연기에 질식사해 사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고흥=주지중기자 gju@kwangju.co.kr

음주 교통사고에 주먹질까지

○광주에서 30대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피해 차량 운전자 일행이 쫓아오자 이들을 폭행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배모(33)씨는 23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A수퍼 앞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운전 기사 정모(31)씨 등 2명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

○배씨는 5분 전 S수퍼 인근 도로에서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4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서 가던 정씨의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했는데, 경찰에서 "도망가던 중 정씨 일행이 저지하자 화가 났다"며 횡설수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대학원 시험 커닝 처벌수위는? “벌금 500만원” 땅땅땅!

전 조세대 이사 부정행위 지위 남용 학교 명예 실추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대학원 시험에서 부정행위(커닝)를 저지른 60대 남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조선대학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조세대 법인 이사 이모(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선대

에서 '고전번역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시험'을 보던 중 미리 준비한 문헌사전과 커닝 페이퍼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해 부고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 이사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지위를 남

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대화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시험 감독관의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위계(偽計)로써 임의전행 업무를 방해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급 매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29P
 → 매매가-5300만원(일시불)
 → 문의, 010-4667-9300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사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법적보장 / 전화상담 사절!

사정상 “매매”

순천지방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P, 건물 480P, 5층 신축건물
- ▶ 감정가 / 시세 - 24억원
- ▶ 임대 - 보증금 3억원에 월1,300만원 예상(임대중) 2층 프랜차이즈 커피숍 임대 완료 5층 골프연습장 임대 계약
- ▶ 대출 - 14억원(이자 월550만원)
- ▶ 매매가 - 23억원, 이전비 없음
- ▶ 수입 - 6억원 투자에 월750만원

주인직매 H. 010-4667-9300